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주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대한 비교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전 종 미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대한 비교 -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전 종 미

# 인 준 서

전종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이론적 배경 .....	6
1.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	6
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	13
1) 강점 관점 이론 .....	13
2) 임파워먼트 .....	18
3)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 .....	21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임파워먼트 .....	25
(1) 학년 .....	25
(2) 성적 .....	25
(3) 부모의 학력 .....	26
(4) 경제 수준 .....	26
5) 다문화 특성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	27
(1) 자신의 외모차이 .....	27
(2) 이중언어 구사능력 .....	27
6) 부모양육태도와 임파워먼트 .....	29
7)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	30
8) 자아정체감과 임파워먼트 .....	34

<b>Ⅲ. 연구 방법</b> .....	39
1.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	39
1) 연구 모형 .....	39
2) 연구 문제 .....	40
2. 조사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42
1) 사회인구학적 변인 .....	42
2) 부모양육태도 척도 .....	43
3) 사회적 지지 척도 .....	44
4) 자아 정체감 척도 .....	45
5) 임파워먼트 척도 .....	46
3.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	48
1) 조사대상 .....	48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	48
4. 자료 분석 방법 .....	49
<b>Ⅳ. 연구 결과 및 분석</b> .....	5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0
2. 조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 .....	56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59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59
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61
3)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63
4) 자아정체감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69
5) 다문화특성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71
4.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2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74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76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78
4)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84
5)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86
6)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88

V. 논의 및 결론 .....	94
------------------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3-1> 부모양육태도 구성 및 신뢰도 .....	43
<표 3-2>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 .....	44
<표 3-3> 자아정체감 척도의 신뢰도 .....	45
<표 3-4> 임파워먼트의 구성 및 신뢰도 .....	47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3
<표 4-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특성 변인의 경향 .....	55
<표 4-3> 조사대상자의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 .....	58
<표 4-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62
<표 4-5>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62
<표 4-6>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68
<표 4-7> 자아정체감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70
<표 4-8> 다문화특성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	71
<표 4-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81
<표 4-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82
<표 4-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83

<표 4-12>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91
<표 4-13>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92
<표 4-14>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93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39
---------------------	----

## 논문개요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점점 증가해감으로써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 최근 들어와 학교 제도권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맞아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점 관점의 개념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에게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74명과 일반가정 청소년 184명으로 총 358명이다. 이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지방이며, 자료 수집은 지역의 초등학교, 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로는 박민선(1999)의 부모양육태도 척도와 박아청(2003)의 자아정체감 척도, 김경란(2006)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김희성(2002b)이 개발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척도 중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학력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다소 낮은 학력수준을 보였으나 모학력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성적과 경제 수준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조건들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성적과 경제수준, 모양육태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일반가정 청소년은 학년, 성적, 경제수준, 부양육태도, 모양육태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은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임파워먼트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변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친구 지지와 물질 지지, 자존 지지, 정서 지지 등의 지지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위 개념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만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이웃, 친구 등 주변인이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지지해주도록 사회적 인식과 풍토가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부모양육태도가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양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대상으로 성장 발달시기에 적절한 부모교육이나 올바른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어 진다.

## I. 서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에 국제결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통계청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6년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약간 주춤한 상태이지만 2009년에는 33,300건으로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비율이 10.8%에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 중 학령기에 진입하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2007년 13,445명, 2008년 18,778명, 2009년 24,745명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초등학생은 2007년 11,444명, 2008년 15,804명, 2009년 20,632명으로 전년도 대비 68.4%, 38.1%, 30.5%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단일민족 의식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 이처럼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착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제도권에 들어가는 연령으로 성장하면서 학교 및 사회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그들의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외모의 차이, 사회로부터의 편견 등은 상당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욕구와 능력, 신념을 바탕으로 일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만약 적절한 자아상을 찾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어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도 좌절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선생님, 혹은 이웃으로부터 남들과 다른 환경으로 인해 긍정적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송선진, 2007). 특히 우리 사회의 다문화시대를 이끌어 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성장함에 있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며 또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병리적이고 결함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강점 중심적이며 임파워먼트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이원숙, 2007).

최근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관점 및 실천모델로 대두된 강점 관점(strength-perspective)이나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관련하여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김미옥, 2005). 이 개념들은 청소년 스스로 고위험 상황에서도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결정을 하며,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강점 관점은 청소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 희망, 강점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이러한 강점 관점을

잘 드러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실천적 개념이 바로 임파워먼트이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신 내부의 힘을 찾아 결과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Parsons, 1999). 청소년들에게 임파워먼트가 형성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위험 환경에 접해 있어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해 가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연구는 임파워먼트가 학교 적응에 유용한 변인으로서 영향을 살펴보았다(김영란 외, 2007; 유평수, 2008b).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김지혜, 2010; 백미숙, 2010), 자아정체감(송선진, 2007; 조한숙, 2010), 사회적응(김경란, 2006; 박순희, 2009),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임한나, 2008; 김홍주 외, 2010)에 관한 연구들이 있을 뿐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들

이 임파워먼트가 학교 적응에 도움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미 밝힌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변인과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임파워먼트가 청소년기에 중요한 터전이며 사회 생활의 기초가 되는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도 학교적응을 높힐 수 있는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변인들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은 학습 지도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문화 체험 교실, 가족 나들이 등의 일회성 및 전시적인 사업들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현장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단시간내에는 성적을 올린다거나 생소한 경험을 체험하여 만족감을 줄 수는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해 왔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 의식을 갖고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강화, 즉 임파워먼트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청소년이 임파워먼트 된다면 내적인 힘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학교 외의 다양한 청소년 모임활동 등을 참여하면서 건강한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과 실천 개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기의 중

요한 시기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리사회적환경이 상이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대한 비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전술한 문제 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점 관점에 기초한 개념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점 관점의 개념에 기반하여 그 실천개념인 임파워먼트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에게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환경을 사실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 지원을 마련할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의 영향을 알아내어 청소년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다문화가정에 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결혼이민자 부부 적응 및 갈등에 관한 연구로는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표현영, 2004; 양순미 외, 2006; 최경숙, 2006)와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신경희, 2004; 손은록, 2004; 김오남, 2006; 안현주, 2006; 박형식, 2006)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들로는 결혼 전 본국에서의 직업경험이나 학력 등이 있고, 한국문화를 결혼 이민자 스스로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아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보다 부부와 관련된 가족 상호관계 영역에서 더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요인으로는 경제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인척관계, 생활습관의 차이 등 순으로 나타났고, 농촌 지역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코올 중독, 도박, 고부간 갈등들이

많아 한국여성들보다 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임안나, 2005; 신란희, 2006; 홍달아기 외, 2006; 권유경, 2007), 다문화가정 실태조사(김영주, 2006; 정일선, 2006), 사회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허밍타이, 2005; 이태옥, 2006; 방신영, 2006; 안혜옥, 2006;).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한 연구(최금해, 2006; 이정희, 2006; 손민규, 2007; 구차순, 2007; 이혜정, 2007; 노하나, 2007)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결혼이민자 가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여성은 남편, 시집가족들과의 관계가 갈등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냄과 동시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새로 맺은 가족관계에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신 국가별로 가족에 관한 정의와 가치관이 다름에 따라 각 가족 간에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신영(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택한 이유와 한국 생활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삼아 그 중 8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남편의 경우 대부분 사회 비 주류층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평등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일선(2006)의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국제결혼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중국 여성과의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며 농림어업종사자의 50%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미취학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주된 양육자가 결혼이민자 여성인 경우가 52.6%로 절반이상이었고, 자녀 양육 시 한국말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42%정도가 호소하였다.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옥(2006)은 영광지역의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 사회적 지지망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민자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광지역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돈에 의해 팔려오거나 가족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자적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행위주체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편과 시집식구들의 관계는 갈등적 모습을 보이지만 잠재되어 있는 친밀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여성과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망이 형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영광지역에서 주변화된 남성과 외국인 여성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은 여전히 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오성배, 2006; 정은희, 2004), 자녀 양육의 어려움(권오희, 2006; 김남숙, 2009)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학령기로 접어드는 숫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녀교육 실태조사(김갑성, 2006; 조영달, 2006),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임한나, 2008; 김홍주 외, 2010), 학교적응과 자녀 사회화에 관한 문제(금명자 외, 2006; 김경자, 2008; 박순희, 2008; 안은미, 2007; 이지애, 2008; 홍영숙, 2007; 홍진주, 2004), 자아정체감 및 자아존중감(김경란, 2007; 김지혜, 2010; 백미숙, 2010; 송선진, 2007; 신혜정, 2007; 조한숙, 2010), 적응유연성(박순희, 2009; 장진경 외, 2009)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인 실정이다. 이는 90년대에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세대들이 성장하여 학교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여 청소년기가 된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금명자 외(2006)의 연구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7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실태와 사회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정체감, 소속감, 직업선택 뿐 아니라 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 폭행 등의 문제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45.5%가 자신을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2.6%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여겼다. 특히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60.0%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반면 어머니가 비(非)아시아인인 청소년의 경우 단지 21.4%가 자신을 한국인으로 여겼다. 또한 응답자의 10%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14.3%는 우울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8.6%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30% 가량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공부가 싫어서(10.1%)가 가장 많았고, 차별과 불공평(5.8%), 선생님과 아이들이 싫어서(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5% 가량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차별 속에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혜정(2007)은 서울과 전라 남·북도 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한국어실력,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친구지지와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교우관계,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정체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가 한국어를 잘 구사할수록,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교육관계와 학교행사관계에 적응을 잘하는 대상일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송선진(2007)은 전라북도 지역의 초등학생 5, 6학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86명과 일반 아동 86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 하위 요소 중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성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왔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 발달, 특히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만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외모의 차이, 한국어 수준, 따돌림 경험,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수준 중에서 자아정체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외모의 차이와 한국어 수준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자신의 외모가 주위 친구들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들수록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자(2008)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를 알아내고자 경상남도 소재 5개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인 3-6학년 아동 196명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아동보고용(KPRC-CRF)과 학교적응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고, 우울, 신체화, 가족관계, 사회관계 문제 등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교사와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학업과 교우관계라는 측면에서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은 우울과 자아탄력성이었고, 일반가정 아동은 우울과 가족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우울 정도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아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가정 아동은 우울 정도가 높으며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아동의 경우 학교부적응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실증적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복

지실천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강점 관점에 기초한 임파워먼트 개념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 이러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임파워먼트라 정의하고 이러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이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명확히 알아내고자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 1) 강점 관점 이론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은 20세기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들이 치료적 또는 다른 전문적 개입을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찾고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20세기 초, 기술 중심의 사회사업이 시작되면서 개인과 가족 중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고 사회사업의 초점도 개인과 가족의 병리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물려 리치몬드(1918)의 “사회적 진단(social diagnoses)”이 출판되면서 진단주의 학파가 생겨나게 되었다. 진단주의 학파는 신체 질환을 진단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광범위한 정보에 초점을 둔 사정을 요약하고 개입의 긴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진단주의 학파의 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배경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정하고, 사회적 진단을 내리는 인과 모델에 따른 의료적 모델을 강조하기 시작했다(Blundo, 2006). 그러나 이러한 진단주의적인 사회사업은 문제를 찾고 밝히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아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클라이언트의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발견한 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의 목표, 열망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낙인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건설적인 방법으로 일하려는 시도에

서 강점 관점의 사회사업이 생겨났다(Welck et al., 2006). 즉, 클라이언트가 변화의 주체이자 핵심이라고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구성되고 있는 ‘real’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강점과 회복력에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Blundo, 2006).

강점 이론의 시발점은 교육 심리학도 도널드 클리프턴(Donald Clifton)의 단순한 질문이었다. “인간의 약점 대신에 강점을 연구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이 질문으로 인해 40년에 걸쳐서 인간의 강점을 연구하는 사상 최대의 연구 조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도널드 클리프턴은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강점 이론을 확립했다. 또한 1969년에는 SRI 경영컨설팅사를 설립하여 포춘(Fortune) 500대 기업과 학교, 스포츠팀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1988년 세계적인 여론 조사 기관인 갤럽(Gallup)을 인수한 뒤 연구의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혔다. 갤럽의 학자들은 도널드 클리프턴 박사의 주도로 미국에서만도 수백 개의 회사와 1천개가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강점 이론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된 연구가 40년에 걸쳐서 25만명 이상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 조사 프로젝트로 확대된 것이다. 도널드 클리프턴은 평생에 걸쳐서 인간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한 강점 심리학의 기초를 확립하여 2002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강점이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분야의 오랜 역사를 통해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이 하나의 관점으로서 개념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Weick, Rapp, &

Sullivan, 1989). 강점 관점은 모든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며, 클라이언트의 장애, 학대, 질병, 투쟁이 해로울 수 있으나 오히려 도전과 기회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 관점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회복할 것이고, 다양한 자원들이 회복에 유용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클라이언트와 협력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자체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발견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 시키려는 이론이다.

강점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강점 발견하기,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기, 자기 결정권 갖기, 협력적 관계 맺기, 적극적 외부활동하기, 지속적인 배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기 등의 실천 원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Rapp, 1988). 먼저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의미를 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성취 가능성과 그들이 어떤 자원을 가지며, 그들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꿈과 포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은 클라이언트의 목표성취를 도울 수 있고, 자기 결정에 기초한 활동은 클라이언트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적극적인 외부활동은 사정과 개입의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의 방향을 제공하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와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통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은 강점 관점의 핵심 신념으로서 원칙을 가진다.

Assay와 Lambert(1999)의 연구에서 개인, 가족, 환경의 강점, 자산, 자원과 같은 친숙한 자원으로부터 얻는 통찰력, 희망에 대한 감각 등의 강점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과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호, 공감, 긍정적인 관심, 진실성과 존경에서 형성된 진실한 원조관계는 클라이언트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돕는 강점 관점의 주요 개념으로 소속감(membership), 레질리언스(resilience), 치유(healing), 대화와 협력(dialogue & collaboration), 불신의 종식(suspension of disbelief),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소속감은 사람들이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소외되고 고독한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그들의 권리와 책임, 확신, 안전함 속에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송성자, 2003). 또한 참여를 통해 가지는 소속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존엄과 존중,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레질리언스는 누구나 심각한 문제와 극한 상황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역경의 극복을 통해 더욱 탄력을 얻고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성장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Saleebey, 2006). 치유는 혼란, 질병, 분열에 당면할 때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신체와 마음에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것과 선천적인 재능이 있음을 신뢰하며, 모든 유기체는 자기긍정성의 경향과 치유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Saleebey(2006)는 대화와 협력, 불신의 종식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개념으로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화와 협력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를 가족과 지역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협력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을 이루어질 때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소중함, 존중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개인, 집단, 가족을 원조하기 위해 그들의 박탈과 억압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 또는 지역사회와 자원과 도구를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이다(Saleebey, 2006). 즉,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회복력을 신뢰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점 관점의 주요 개념 중 임파워먼트를 채택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잠재된 힘을 긍정적으로 발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의 개념으로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강점 관점은 대상자의 강점, 관심, 열망에 초점을 두고,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을 가진 대상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변에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격려나 칭찬보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강점 관점 이론 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살펴본다면 수동적이고 비주류의 참여자라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주체로서 이들을 지지하고 인정하며, 가족, 학교, 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긍정적이고 건강한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 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일부 억압받는 소수집단에 유용한 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존재했던 철학이며, 이념이자 실천원칙이다(김미옥, 2005). 임파워먼트는 1970년대 말의 지역사회 발전운동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대인서비스 분야의 철학이 되어 왔으며(김희성, 2004), 최근에는 정치, 경영, 조직 전문가, 사회복지,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에서의 임파워먼트는 1970년대 중반 Chestang, Solomon 등의 학자에 의해서 임파워먼트 모델로 재정리되었으며(김미옥, 2005), 이후 사회복지학의 지속적인 관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점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 내외에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표갑수, 2002).

임파워먼트 개념은 인구와 맥락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구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화 하기는 쉽지 않다 (Zimmerman, 1995). 이제까지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해 합의된 바는 단지 임파워먼트 개념이 역동적인 개념, 다양한 수준을 전제로 하는 개념 (Thomas & Velthouse, 1990; Zimmerman & Rapport, 1988; Rapport, 1987; Murrell, 1985), 능력을 향상시키는 독특한 하나의 과정 개념 (Kieffer, 1984; Murrell, 1985; Zimmerman, 1990; Zimmerman & Rapport, 1988) 정도로만 거론되고 있다(장신재, 2004).

임파워먼트는 하나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이슈에 따라 사람들에게 힘을 돌려주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과 사람 내부의 힘을 찾는데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구분이 된다(Zimmerman, 1995). Solomon(1976)은 타인에게 힘을 돌려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임파워먼트를 설명하기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계획된 진행과정으로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낙인화된 사람들에게 무기력을 감소시키고, 그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권리, 기회, 자원을 박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이를 회복시켜 주어 자원을 연결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Rapport(1987)는 자신 내부의 힘에 초점을 두는 임파워먼트를 설명하기를 ‘각 개인이 삶의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인 참여를 하여 자신의 환경에 대한 비평적 이해를 하는 과정, 즉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사람들의 내적 힘을 스스로 찾는데 있고, 개인 내적, 대인 관계적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각각의 수준들은 사회복지를 실천

하는데 개입의 초점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차원의 임파워먼트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정순돌 외, 2007). 한 개인이 개인 내적 수준에서 임파워먼트를 형성하여 가지고 있는 내적 힘에 대한 사정을 통해 내적 힘을 찾게 되면 개인적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문제해결과 자기방향성을 증진시키는 대인 관계나 환경과의 상호작용능력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김희성, 2002b).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임파워먼트를 내적 힘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후자 개념에 입각하여 임파워먼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 내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생태학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상황 속의 인간 개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개인의 행동, 기술, 문화적 인식, 동기, 통제와 같은 변수들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Bolton과 Brookings(1998)는 개인내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인적 능력, 집단 인식, 자기결정의 하위개념을 사용하였다(김희성, 2002a).

대인관계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소규모 집단 내 상호작용과 역동 안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도와주고,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이에 속한다(Zimmerman & Zahniser, 1991).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자기를 남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동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 개념을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는 파워를 키워내고 성장시키고 발현시키는 과정과 결과에 관련된 모든 활동. 즉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

아동, 청소년, 가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의 여러 실천현장에서 임파워먼트를 실천의 철학 혹은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내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파워를 습득함으로써 주체로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내부의 힘을 찾으면 결과적으로 개인 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가능성을 일으키고, 자신의 역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Zimmerman, 1995; Bolton & Brookings, 1998; Parsons, 1999).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실천현장에서도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임파워먼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김희성, 2005; 문성호, 2005; 이상준 외, 2008; 유난영, 2008; 유평수, 2008).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개인적인 심리나 정신내적 현상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하여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역량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과 자원을 규명하고 최대화하여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현실화 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가능하게 한다는 원리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빈곤가정 청소년에 관한 연구(김희성, 2002a; 임정기, 1999),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곽금연, 2009; 권근영, 2008; 국영희, 2008; 김현숙, 2007; 주애란, 2006; 유평수, 2008a), 학교 적응 관련 연구(김영란, 2007; 박진영, 2000; 유난영, 2008), 참여행동 연구(김희성, 2005; 윤동엽, 2010; 문지영, 2004) 등이 있는데 대부분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거나 자립 준비와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평수(2008a)는 전문계 고등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의미성, 영향성,

역량성, 자기결정성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즉시적 효과 면에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후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자기결정성 영역에서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성, 영향성, 역량성 점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임파워먼트 외에도 다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수정(2008)의 연구는 빈곤가정 초등학생과 중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김희성(2002b)이 청소년 측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번안, 수정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능력, 집단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의 3가지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결과를 중점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단계는 설명력 21%였으며 성별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 단계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52%였고 자아탄력성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성별, 가족구조가 초등학생의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55.8%였고 성별과 자아탄력성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드러났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임파워먼트 관련 변인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으로는 심리적 자원인 자아통제감이나 자존감 그리고 자아탄력성 등이 있고, 가족 자원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 부모의 직업, 가족의 지지 및 가족의 적응력, 그리고 환경적 자원으로는 사회의 지지체계의 정도와 질, 정치·사회적 참여허용 정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가족 내에 다국적 문화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정체성 혼란과 사회로부터의 편견들에 자유로울 수 없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임파워먼트가 학교 적응 및 심리적 자원들의 결과물로 특히 요구되고 필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들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활성화하여 확산하는 차원의 의미로 적용하여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교하는 연구이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 양육 태도, 사회적 지지 및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임파워먼트

##### (1) 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많지 않아 학년을 연령으로 확대시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미옥(2005)의 연구는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임파워먼트는 자아이미지, 실제적 힘, 사회정치의식 등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임파워먼트 하위영역인 실제적 힘 임파워먼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한 수준에서 실제적 힘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준은 미약하였다. 그 외의 연구들(주애란 외, 2005; 김수정, 2008)에서는 학년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2) 성적

김영란(2007)은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김희성(2002b)이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개념으로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성적에 따른 임파워먼트 평균은 성적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적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 (3) 부모의 학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장덕희 외 (2010) 연구에서는 모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자녀집단이 대졸이상의 자녀집단에 비해 학교부적응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지는 않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임파워먼트 요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학력 변인을 포함시켰다.

### (4) 경제 수준

김영란(2007)은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평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이 높은 상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학년, 성적, 부모의 학력, 경제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 5) 다문화 특성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다문화가정 여부’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임파워먼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려 한다. 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다문화특성 변인을 포함시켜 설명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 (1) 자신의 외모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모와 임파워먼트를 연구한 결과는 없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경란(2007)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외모가 또래 친구들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사회적응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 (2) 이중언어 구사능력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이중언어 능력은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필수사업으로 이중언어 교실 운영을 독려하며 이중언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샤론(2010)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도의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5,학년층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그 중 어머니 나라 언어 실력(이중언어 구사능력)에 관한 질문에 81명(55.1%)이 ‘조금한다’로 응답하였고, 27명(18.4%)이 ‘보통이다’, 17명(11.6%)이 ‘매우 잘한다’, 13명(8.8%)이 ‘조금 잘 한다’, 9명(6.1%)이 ‘전혀 못 한다’로 응답하였다. 이 질문의 응답자의 대부분인 138명(93.9%)이 어머니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박지선(2009)은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관해 심층 면담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어와 부모의 나라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도 확고하고 두 언어를 사용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통역 자원봉사 등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자신들이 필요한 존재이고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외국인 부(모)의 본국 언어를 사용하는 여부가 이들의 자아정체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파워먼트 설명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 6) 부모 양육 태도와 임파워먼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내적·외적인 행동이며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다.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과 더불어 중요한 변인이다. 부모와의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청소년 자신의 임파워먼트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 될 것이다.

가족환경은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적응과 자아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바 있다(고근중, 2006). 이 중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의 설명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가족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빈곤지역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보호요인과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 위험·보호요인과 임파워먼트를 택하여 각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유난영(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이라는 환경적 위험요인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 중 부모양육태도를 채택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 7)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지지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존중되며, 사회관계망에서 가치 있는 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Cobb, 1992).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고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이며,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별되는데(House, 1981), 일반적으로 객관적 지지(objective support)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perceived support)에 중요성을 두고 지지를 측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적응적 결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는 그 구조나 조직망의 특성보다는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최승애, 1988). 이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보다는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availability)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보다 정확한 예측치가 될 것이다.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 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송종용, 1988). 이와 맥락을 같이 한 Kessler, Price와 Wortman(1985)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충고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제공된 지지보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 상태의 환경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다양한 지지원과 유형이 적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충분히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DuBois, Felner, Brand, Adam & Evans, 1992). 따라서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과 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평정 방법은 다른 사람에 의해 평정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것을 평정하는 방법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Barrera, 1981; Cauce, Felner & Prinavera, 1982; Compas, Slavin, Wagner & Vannatta, 1986), 본 연구에서도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회적 지지 연구는 이들의 구성 요소나 측정기술이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견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의 일환으로 Cooke, Rossman, McCubbin과 Patterson(1988)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지지원의 평가라는 두 차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여 사회적 지지가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한 이론가도 있으며(Lakey & Cassady, 1990), 이러한 지지 양상이 청소년의 적용과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황령희(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개인내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동적 차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적 차원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기(1999)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김미옥(2005)은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성별, 연령, 장애 정도 등의 통제변수를 선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모두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 변수 중 가족 및 이웃의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더 강해짐을 보여주었다.

이혜경(2007)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지지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고, 임파워먼트는 김희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가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친구 지지와 생활복지사의 지지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친구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지고 친구 지지와 생활복지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김수정(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20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이웃 지지로 세분화 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중 가족 지지와 친구 지지가 임파워먼트 수준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가족과 친구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임파워먼트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변인을 투입한 단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빈곤가정 초등학생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 연구들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가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며 긍정적 자원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드문 상황에서 강점 관점을 적용한 ‘긍정적 자원’의 개념으로 사회적 지지를 해석하여 임파워먼트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채택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비교 중심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 유형으로 나누고, 지지원에서는 가족, 교사, 또래 지지를 통해, 지지 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물질적 지지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드문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8) 자아정체감과 임파워먼트

자아정체감은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의 주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체제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Erikson, 1968)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규범 또는 가치들을 수용하고 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 핵심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 환경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요소인 가정으로부터 가장 크고 깊게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모든 것에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아동은 친구가 아닌 다른 아동들과도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미소와 대화를 통해 협력을 하며, 갈등을 쉽게 해결하며, 갈등 후에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유연옥, 1998).

손정주(2010)는 대전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 지지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자아정체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지지와 대인관계 능력 간에 자아정체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를 통해 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며 자아정체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지지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역시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자아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흔치 않으며 그 일부로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인으로 다룬 연구들이다. 최용민(2006)은 복지관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임의표집한 후 임파워먼트(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임파워먼트(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집단개입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보다 자아정체감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평균점수가 10.14가 향상하여 4.25의 향상을 보인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 척도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관계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아정체감과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해 보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아정체감을 매개로하여 영향 요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년(연령)과 관련된 선상이(2010)의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정 95가구의 어머니 95명과 자녀 95명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들이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자아정체감(주체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9세 자녀의 주체성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4-16세, 10-11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한숙(2010)의 연구는 전라북도 내 다문화가정 아동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310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어머니 양육태도를 추가한 모델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 양육태도에 학교생활만족도를 추가한 모델에서는 어머니 국적과 어머니 양육태도(거부·제재)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덜 거부적이고 덜 제재적일 때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 어머니 양육태도임을 알 수 있다.

안은선(2010)은 경기도 광명, 분당, 안산시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299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수용-거부적인 양육태도와 성취 압력에 대한 양육태도, 어머니의 수용-거부적인 양육태도와 성취 압력에 대한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적을수록 자녀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성취 압력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최주희(1994)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승국(1999)은 생태학적 변인들이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유미(2006)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해외 귀국청소년 108명을 연구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해외 귀국청소년의 특성(해외 체류기간, 국내 거주기간, 해외 거주이유, 외국어수준, 한국어 수준, 학업성적 등)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 한국어 수준( $\beta=.12$ ,  $p<.001$ ), 사회적 지지원( $\beta=.78$ ,  $p<.001$ ), 사회적 지지 유형( $\beta=.22$ ,  $p<.001$ )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귀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이들의 사회적 지지(지지원, 지지 유형)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상이(2010)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95가구(어머니 95명,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 95명)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사소통, 정서적 친밀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자녀의 사회적 지지(또래, 가족, 교사, 정서적, 자존감, 정보적, 물질적 지지)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단계선택(Stepwise) 방법 결과,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중 교사 지지만이 자아정체감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beta=.609, p<.001$ ), 사회적 지지 하위영역 중 또래 지지만이 자아정체감 자기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86, p<.001$ ). 또한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미래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beta=.523, p<.001$ ). 즉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주체성이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또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수용성이 높아지며,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 확신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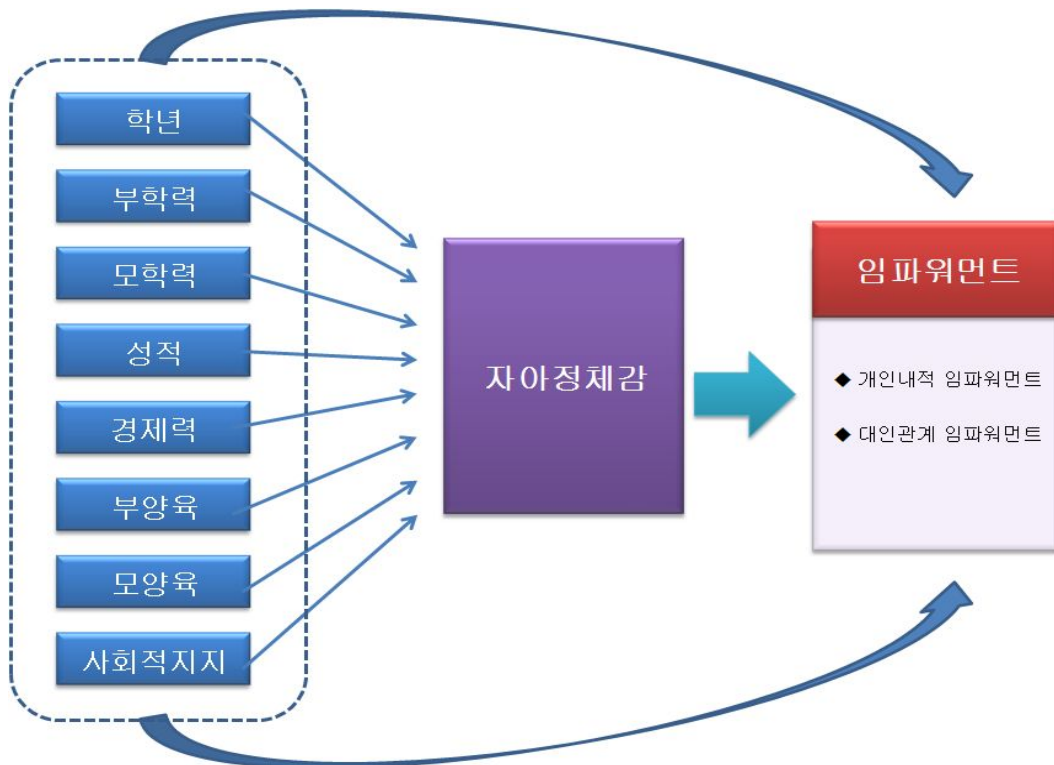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동으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경험의 축적과 동일시 및 그 구조적 통합을 통해 일생동안 발달되는 것이라는 점(Erikson, 1980)과 이 시기는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이므로 자아정체감 발달을 측정하는데 적당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행동발달시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성에 근원을 두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채택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

##### 1) 연구 모형



[그림 3-1] 연구모형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관련요인 중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사회적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어떠한가?

2.4.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전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4.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5.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3.6. 일반가정 청소년의 전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조사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성별, 종교, 성적, 경제수준, 거주지역, 가족형태, 다문화가정 여부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변인들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나이는 학년을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형제관계는 몇 남 몇 녀 중 몇째인지 직접 기입토록 하였다.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통일교,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성적은 반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권(1-10등), 중위권(11-20등), 하위권(21등 이하)로 나누었다. 부모의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수준은 상(좋은 편), 중(보통), 하(힘든 편)으로 나누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누었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다문화가정 여부’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신이 지각하는 외모의 차이를 묻는 질문과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외모 차이는 ‘매우 비슷하다’의 1점부터 ‘매우 다르다’의 4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의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외국인 부(모)의 언어 구사 능력은 ‘전혀 못한다’의 1점부터 ‘매우 잘한다’의 5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을 의미한다.

## 2) 부모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chaefer(1965)의 부모의 행동 지표 아동용 질문지(Child'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와 Roberts, Block & Block(1984)의 아동 양육태도 질문지(Child's Rearing Practices Report)를 토대로 Lempers(1989)가 구성하였는데, 박민선(1999)이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되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권위주의적이고 비일관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민선의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부양육태도 .85, 모양육태도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양육태도 .87, 모양육태도 .88 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아래 <표3-1>와 같이 나타났다.

<표 3-1> 부모양육태도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범위	신뢰도
부양육태도	1 - 8	1점-32점	.873
모양육태도	1 - 8	1점-32점	.880

### 3) 사회적 지지 척도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와 김명숙(1994)의 척도를 이경주(1997)가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 보완한 홍진주(2004)와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경란(2006)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홍진주(2003)와 김경란(2007)은 사회적 지지척도를 지지원과 지지체계로 구성하고, 지지원 측정도구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측면으로 나누었고, 지지체계는 정서지지, 정보지지, 자존지지, 물질지지의 네 측면으로 나누어 총 1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이 적은 2문항을 제외하여 지지원 세 측면과 지지체계 세 측면으로 총 16개 문항으로 조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매우 아니다’는 1점, ‘아니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 항목을 구성하는 지지원과 지지체계에 따른 하위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아래 <표3-2>와 같이 나타났다. 홍진주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1로 나타났다.

<표 3-2> 사회적 지지 척도 신뢰도

척도	문항번호	범위	신뢰도
사회적 지지	1 - 16	1점-64점	.931

#### 4)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표 3-3>과 같다. 본 연구의 자아정체감 척도는 박아청(2003)이 개발한 것으로, 그간 다양한 종류의 자아정체감을 사용하던 중 제기된 문제들을 수정·보완하여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하위 개념척도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문항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요인분석결과와 상관계수를 토대로 전체 문항을 10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측정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법을 적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따라서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박아청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가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6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은 문항간 평균 상관관계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문항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 척도는 박아청의 본 척도보다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Cronbach's  $\alpha$ 값이 낮아졌지만,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시 Cronbach's  $\alpha$  계수가 0.6 이상이면 무난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척도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sup>1)</sup>.

<표 3-3> 자아정체감 척도 신뢰도

척도	문항번호	범위	신뢰도
자아정체감	1 - 10	1점-50점	.663

1) 마우스로 잡는 PASW statistics 18.0 (2010). 우수명저, p431.

## 5) 임파워먼트 척도

현존하는 임파워먼트 척도는 무척 다양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임파워먼트 척도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3-4>와 같이 김희성(2002)이 고안한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김희성의 임파워먼트 척도가 한국 청소년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외국 학자들의 임파워먼트 척도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트 실천의 연구와 효과성을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김희성은 임파워먼트를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영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는 Bolton과 Brookings(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개인적 능력, 집단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의 3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척도는 안범희(1985)의 대인관계 적절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각관계, 표현·정서관계, 역할관계, 자율·통정관계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는 Zimmerman과 Zahniser(1991)가 청소년을 위해 개발한 정치·사회 통제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도자 능력과 정치통제의 2가지 하위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척도 질문내용이 초등학교 학생이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너무 난해하고 적절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임파워먼트 척도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성하였다. 김희성의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Cronbach's  $\alpha$ 가 .84,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Cronbach's  $\alpha$ 가 .9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Cronbach's  $\alpha$ 가 .710,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Cronbach's  $\alpha$ 가 .865, 전체 임파워먼트 Cronbach's  $\alpha$ 가 .772로 나타났다.

<표 3-4> 임파워먼트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구 분	문항번호	범위	신뢰도
개인관계 임파워먼트	1 - 12	1점-48점	.710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1 - 10	1점-40점	.865
임파워먼트	1 - 22	1점-88점	.772

###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sup>2)</sup>으로서, 청소년의 구체적인 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6학년(13세)까지의 학생이다. 서울 및 경기,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초등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기관의 도움을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표집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집방법 중 임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조사는 2010년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설문을 진행하거나 기관 담당자가 해당기관의 학생들에게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설문문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접 작성하기 힘든 학생들은 일대일 면담형식으로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설문지는 곧바로 수거하였다.

---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11세)부터 6학년(13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청소년이라 칭한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전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 42부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용 174부와 일반가정 청소년용 184부를 포함하여 회수율 89.5%로 총 358부의 설문지가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기술적 통계와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을 위해서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임파워먼트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전체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산출하였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174명과 일반가정 청소년 184명으로 총 358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39.1%(68명), 여자가 60.9%(106명)를 차지하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43.7%(76명), 초등 5학년이 29.3%(51명), 초등 6학년이 27.0%(47명)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59.8%(104명), 경기도가 18.4%(32명), 충청도가 20.7%(36명),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각 0.6%(1명)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9%(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24.9%(43명), 중학교 졸업이 13.9%(24명), 초등학교 졸업이 8.1%(14명), 대학원 이상이 6.9%(12명), 전문대 졸업이 4.0%(7명), 무학이 2.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5.3%(61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4.1%(59명), 전문대 졸업이 11.0%(19명), 중학교 졸업이 8.1%(14명), 대학원 이상이 7.5%(13명), 무학이 2.3%(4명), 초등학교 졸업이 1.7%(3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아버지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통일교가 53.2%(92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개신교 20.2%(35명), 무교 15.6%(27명), 불교와 기타 응답이 각각 4.0%(7명), 천주교 2.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11-20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1.4%(8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1-10등)이 28.9%(50명), 하위권(21등이하)이 19.7%(34명)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신의 성적수준이 보통이상이라고 답하였다.

경제수준은 중간정도(보통)라고 응답한 학생이 60.1%(104명)로 가장 많았고, 하(힘든 편)라고 응답한 학생은 23.1%(40명), 상(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6.8%(29명)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79.2%(13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부모,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 8.7%(15명), 한부모 가족형태는 6.4%(11명), 기타 가족형태는 5.8%(10명)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묻는 질문이 4지선다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여서 기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족형태는 알 수 없었다.

다음으로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전체 응답자의 40.2%(74명), 여자가 59.8%(110명)를 차지하였다.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63.6%(117명), 초등 5학년이 23.9%(44명), 초등 6학년이 12.5%(23명)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1.7%(3명), 경기도가 26.7%(48명),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가 각각 0.6%(1명), 경상도가 49.4%(89명), 강원도 1.1%(2명), 제주도가 20.0%(36명)로 나타났다.

부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5.2%(90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26.4%(43명), 대학원이상이 10.4%(17명), 전문대 졸업이 5.5%(9명), 중학교 졸업이 1.8%(3명), 무학이 0.6%(1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3.4%(87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2.5%(53명), 대학원이상이 8.0%(13명), 전문대 졸업이 3.1%(5명), 중학교 졸업이 2.5%(4명), 무학이 0.6%(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의 분포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 30.5%(54명)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무교가 28.2%(50명), 개신교 26.0%(46명), 천주교 8.5%(15명), 기타 5.6%(10명), 통일교 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1.1%(93명)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이 34.1%(62명), 하위권이 14.8%(27명)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5% 이상이 자신의 성적수준이 보통이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간정도(보통)라고 응답한 학생이 62.3%(114명)로 가장 많았고, 상(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2.2%(59명), 하(힘든 편)이 5.5%(10명)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4% 이상이 자신의 경제수준이 보통이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83.7%(154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으로 기타 8.2%(15명), 조부모와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6.0%(11명), 한 부모 가족형태가 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가족형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지만, 본 연구가 설문지를 이용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형태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정 N=174, 일반가정 N=184)

구 분	다문화가정 청소년		일반가정 청소년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68	39.1	74	40.2
	여	106	60.9	110	59.8
학년	초등4학년	76	43.7	117	63.6
	초등5학년	51	29.3	44	23.9
	초등6학년	47	27.0	23	12.5
거주지역	서울	104	59.8	3	1.7
	경기도	32	18.4	48	26.7
	충청도	36	20.7	1	0.6
	전라도	1	0.6	1	0.6
	경상도	1	0.6	89	49.4
	강원도	0	0.0	2	1.1
	제주도	0	0.0	36	20.0
부학력	무학	4	2.3	1	0.6
	초등학교 졸업	14	8.1	0	0.0
	중학교 졸업	24	13.9	3	1.8
	고등학교 졸업	69	39.9	43	26.4
	전문대 졸업	7	4.0	9	5.5
	대학교 졸업	43	24.9	90	55.2
	대학원 이상	12	6.9	17	10.4
모학력	무학	4	2.3	1	0.6
	초등학교 졸업	3	1.7	0	0.0
	중학교 졸업	14	8.1	4	2.5
	고등학교 졸업	59	34.1	53	32.5
	전문대 졸업	19	11.0	5	3.1
	대학교 졸업	61	35.3	87	53.4
	대학원 이상	13	7.5	13	8.0
종교	개신교	35	20.2	46	26.0
	천주교	5	2.9	15	8.5
	불교	7	4.0	54	30.5
	무교	27	15.6	50	28.2
	통일교	92	53.2	2	1.1
	기타	7	4.0	10	5.6

성적	상위권(1등~10등)	50	28.9	62	34.1
	중위권(11등~20등)	89	51.4	93	51.1
	하위권(21등 이후)	34	19.7	27	14.8
경제력	상(좋은 편)	29	16.8	59	32.2
	중(보통)	104	60.1	114	62.3
	하(힘든 편)	40	23.1	10	5.5
가족형태	부모+자녀	137	79.2	154	83.7
	조부모+부모+자녀	15	8.7	11	6.0
	한부모+자녀	11	6.4	4	2.2
	기타	10	5.8	15	8.2

\*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해 변인별 빈도 차이가 있음.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비교 연구이므로 대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만 존재하는 다문화 특성 변인의 경향을 <표 4-2>와 같이 정리하였다.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한국이 92%(160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일본이 50.0%(8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20.7%(36명)로 많았다. 본 연구 대상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가 반친구들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금 비슷하다’ 35.8%(6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비슷하다’ 31.2%로 많았다. 응답자의 67%가 자신의 외모는 반친구들과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일본, 중국)출신의 어머니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자신의 외국인 부(모)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잘한다’가 34.7%(60명)로 가장 많았고, ‘조금 잘 한다’가 22%(38명)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 이상이 이중언어 사용능력을 조금이라도 구사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특성 변인의 경향

(다문화가정 N = 174)

구 분	다문화가정 청소년		
	빈도 (명)	백분율 (%)	
부국적	한국	160	92.0
	중국(조선족포함)	3	1.7
	일본	5	2.9
	필리핀	2	1.1
	기타	4	2.3
모국적	한국	10	5.7
	중국(조선족포함)	30	17.2
	일본	87	50.0
	베트남	5	2.9
	필리핀	36	20.7
자신외모	매우 비슷하다	54	31.2
	조금 비슷하다	62	35.8
	조금 다르다	41	23.7
	매우 다르다	16	9.2
	전혀 못 한다	20	11.6
이중언어 구사능력	조금 한다	32	18.5
	보통이다	23	13.3
	조금 잘 한다	38	22.0
	매우 잘 한다	60	34.7

\*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해 변인별 빈도 차이가 있음.

## 2. 조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4-3>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경향을 비교한 결과, 부모양육태도 중 부양육태도는 일반가정 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가정 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권위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양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권위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공통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더 민주적이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일반가정 청소년이 다양한 지지원(가족, 교사, 친구)과 지지 체계(물질 지지, 정서 지지, 자존 지지)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가 2.49인데 반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평균점수는 2.83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나타냈다( $t=-5.499$ ,  $p<.001$ ).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는 김갑성(2005), 남윤주(2009)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점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자아정체감의 차이에서 보여준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부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가정 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외국인 부모(모)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나 자신의 외모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표4-3> 조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

(다문화가정 청소년 N=174, 일반가정 청소년 N=184)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t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양육태도	3.11	0.70	3.22	0.68	1.418	0.157
모양육태도	1.85	0.68	1.78	0.67	-0.962	0.337
사회적지지	3.12	0.60	3.22	0.53	1.643	0.101
자아정체감	2.83	0.56	2.49	0.61	-5.499	0.000***
개인임파워	2.44	0.40	2.42	0.40	-0.557	0.578
대인임파워	2.99	0.56	3.08	0.54	1.505	0.133

\*p<.05, \*\*p<.01 \*\*\*p<.001, \* 결측값(missing data)에 의해 변인별 빈도 차이가 있음.

###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다문화특성 변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는 <표 4-4>와 같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가 개인내적,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적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성적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성적

이 ‘상’,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과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89, p<.01, F=3.589, p<.05$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제수준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는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경제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경제수준이 ‘상’,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과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913, p<.01, F=3.880, p<.05$ ).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먼저 학년에 따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초등학교 4학년 집단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집단 간에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699, p<.01$ ). 성적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8.074, p<.001$ ). 경제수준에 따른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277, p<.01$ ).

## 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부양육태도, 모양육태도로 구분지어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4-5>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모양육태도 중 모양육태도만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284, p<.05$ ). 즉 모양육태도가 비권위적이고 일관될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양육태도가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6.777, p<.01$ ). 모양육태도는 하집단에서 개인내적 ( $M=2.12, SD=.747$ ), 대인관계( $M=2.10, SD=.779$ )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양육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개인내적,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015, p<.01, F=5.352, p<.01$ ).

<표 4-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청소년 N=174, 일반가정 청소년 N=184)

항 목	다문화가정 청소년								일반가정 청소년								
	개인내적				대인관계				개인내적				대인관계				
	M	SD	F	사후 검증	M	SD	F	사후 검증	M	SD	F	사후 검증	M	SD	F	사후 검증	
4학년	2.41	.428			2.97	.564			2.39	.378			3.19	.474		b	
5학년	2.42	.439	1.377		2.99	.667	.193		2.48	.505	.821		2.87	.619	7.699**	a	
6학년	2.54	.279			3.03	.434			2.44	.303			2.90	.544		a	
성 적	상	2.47	.392	a	3.14	.734		a	2.52	.492			3.26	.491		a	
	중	2.46	.334	5.189**	a	2.96	.449	3.589*	a	2.41	.423	1.183	a	3.05	.524	8.074***	ab
	하	2.40	.500	b	2.87	.511		a	2.38	.308			2.80	.523		b	
경제 수준	상	2.60	.358	a	3.16	.775		a	2.44	.362			3.22	.513		a	
	중	2.43	.386	5.913**	ab	3.00	.467	3.880*	ab	2.40	.404	.181	a	3.05	.488	6.277**	b
	하	2.29	.431	b	2.86	.592		b	2.44	.604			2.64	.811		b	

\*p<.05, \*\*p<.01, \*\*\*p<.001,

<표 4-5>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청소년 N=174, 일반가정 청소년 N=184)

항 목	다문화가정 청소년								일반가정 청소년								
	개인내적				대인관계				개인내적				대인관계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부양육 태도	상	1.98	.804		1.90	.774			2.09	.777		a	1.99	.748			
	중	1.78	.754	1.284	1.80	.729	.443		1.92	.741	6.777**	a	1.83	.757	2.031		
	하	1.77	.769		1.91	.734			1.68	.762		a	1.82	.711			
모양육 태도	상	2.12	.763	a	2.09	.830			2.12	.747		a	2.10	.779		a	
	중	1.81	.767	3.284*	a	1.76	.679	2.830	a	1.94	.778	7.015**	ab	1.85	.711	5.352**	ab
	하	1.68	.754	a	1.93	.791			1.68	.720		b	1.75	.755		b	

\*\*\*p<.001, \*\*p<.01 \*p<.05

### 3)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표 4-6>와 같다. 사회적 지지합계 점수를 분류하여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크게 지지원과 지지체계로 구분 하였으며, 지지원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었고, 지지 체계는 정서지지, 자존지지, 물질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먼저 친구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M=2.29, SD=.756)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255, p<.001). 친구 지지에 따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 값은 상 집단(M=2.38, SD=.728)이 가장 높았고, 친구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9.210, p<.001). 가족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 값은 상 집단(M=2.22, SD=.797)이 가장 높았고 가족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93, p<.001). 가족지지에 따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M=2.38, SD=.701)이 가장 높았고, 가족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417, p<.001). 교사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M=2.00, SD=.707)이 가장 높았고, 교사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250, p<.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1.84, SD=.800$ )이 가장 높았고, 교사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298, p<.001$ ).

사회적 지지의 지지 체계는 정서 지지, 자존 지지, 물질 지지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서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28, SD=.723$ )이 가장 높았고, 정서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049,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23, SD=.729$ )이 가장 높았고, 정서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183, p<.001$ ). 자존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34, SD=.775$ )이 가장 높았고, 자존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955,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3, SD=.695$ )이 가장 높았고, 자존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0.728, p<.001$ ). 물질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14, SD=.808$ )이 가장 높았고, 물질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273, p<.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36, SD=.630$ )이 가장 높았고, 물질지지 점수가 '상'인 집단과 '중',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779, p<.001$ ).

전체 사회적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32, SD=.746$ )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999,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6, SD=.648$ )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2.903, p<.001$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 하위개념 전 영역에서 임파워먼트의 모든 하위개념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진주(2004)의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거의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먼저 친구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27, SD=.771$ )이 가장 높았고, 친구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7.475,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39, SD=.683$ )이 가장 높았고, 친구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F=45.008, p<.001$ ). 가족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26, SD=.773$ )이 가장 높았고, 가족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779,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23, SD=.775$ )이 가장 높았고, 가족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5.740, p<.001$ ). 교사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19, SD=.834$ )이 가장 높았고, 교사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9.160,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06, SD=.573$ )이 가장 높았고, 교사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964, p<.001$ ).

사회적 지지의 지지 체계는 정서 지지, 자존 지지, 물질 지지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서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 값은 상 집단( $M=2.29, SD=.779$ )이 가장 높았고, 정서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8.585,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29, SD=.731$ )이 가장 높았고, 정서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0.828, p<.001$ ). 자존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3, SD=.652$ )이 가장 높았고, 자존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417,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9, SD=.636$ )이 가장 높았고, 자존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3.920, p<.001$ ). 물질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37, SD=.737$ )이 가장 높았고, 물질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186,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5, SD=.652$ )이 가장 높았고, 물질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4.730, p<.001$ ).

일반가정 청소년의 전체 사회적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4, SD=.684$ )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043,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평균값은 상 집단( $M=2.45, SD=.624$ )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지가 ‘상’인 집단과 ‘중’과 ‘하’인 집단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3.040, p<.001$ ).

<표 4-6>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청소년 N=174, 일반가정 청소년 N=184)

항 목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개인내적				대인관계				개인내적				대인관계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지지원	친구지지	상	2.29	.756	16.255***	a	2.38	.728	29.210***	a	1.67	.803	17.475***	a	1.55	.712	45.008***	a
		중	1.69	.723		b	1.75	.610		a	1.85	.676		a	1.73	.635		a
		하	1.53	.642		b	1.38	.633		b	2.27	.771		b	2.39	.683		b
	가족지지	상	1.58	.697	10.093***	a	1.52	.673	22.417***	a	1.68	.709	19.779***	a	1.37	.601	35.740***	a
		중	1.76	.728		ab	1.76	.649		a	1.79	.709		ab	1.83	.634		ab
		하	2.22	.797		b	2.38	.701		a	2.26	.773		b	2.23	.775		b
	교사지지	상	1.67	.757	5.25**	a	1.62	.701	15.298***	a	1.78	.777	19.160***	a	1.67	.722	29.964***	a
		중	1.75	.702		a	1.75	.626		a	1.79	.685		a	1.77	.651		a
		하	2.00	.707		a	1.84	.800		a	2.19	.834		b	2.06	.573		a
지지 체계	정서지지	상	1.59	.680	19.049***	a	1.55	.746	15.183***	a	1.76	.757	18.585***	a	1.56	.673	30.828***	a
		중	1.62	.713		a	1.74	.624		a	1.79	.685		ab	1.82	.673		a
		하	2.28	.723		b	2.23	.729		b	2.29	.779		b	2.29	.731		b
	자존지지	상	1.55	.700	14.955***	a	1.34	.572	30.728***	a	1.71	.728	24.417***	a	1.46	.634	53.920***	a
		중	1.73	.707		ab	1.83	.654		ab	1.84	.753		a	1.85	.675		a
		하	2.34	.775		b	2.43	.695		b	2.43	.652		a	2.49	.636		a
	물질지지	상	1.60	.702	6.273**	a	1.43	.634	22.779***	a	1.73	.696	22.186***	a	1.55	.688	44.730***	a
		중	1.77	.743		a	1.78	.698		a	1.80	.735		a	1.75	.671		ab
		하	2.14	.808		a	2.36	.631		a	2.37	.737		a	2.45	.652		b
사회적 지지	상	1.59	.706	15.999***	a	1.50	.642	32.903***	a	1.68	.751	36.043***	a	1.46	.615	63.040***	a	
	중	1.72	.711		a	1.77	.635		b	1.78	.682		a	1.83	.677		b	
	하	2.32	.746		a	2.46	.648		c	2.44	.684		a	2.45	.624		c	

\*p<.05, \*\*p<.01, \*\*\*p<.001

#### 4) 자아정체감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표4-7>와 같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자아정체감을 합계 점수를 분류하여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 지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서는 상 집단(M=2.42, SD=.643)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 집단(M=1.83, SD=.782), 하 집단(M=1.60, SD=.6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647,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상 집단(M=2.42, SD=.643)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 집단(M=1.84, SD=.737), 하 집단(M=1.66, SD=.6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910,  $p<.001$ ).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상 집단(M=2.54, SD=.602)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 집단(M=1.97, SD=.751), 하 집단(M=1.63, SD=.7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1.775,  $p<.001$ ).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서는 상 집단(M=2.48, SD=.713)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 집단(M=1.91, SD=.714), 하 집단(M=1.61, SD=.6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1.214,  $p<.001$ ).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7> 자아정체감에 따른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청소년 N=174, 일반가정 청소년 N=184)

항 목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개인내적				대인관계				개인내적				대인관계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자아 정체감	상	2.42	.643		a	2.42	.643		a	2.54	.602		a	2.48	.713		a
	중	1.83	.782	11.647***	ab	1.84	.737	10.910***	ab	1.97	.751	31.775***	ab	1.91	.714	31.214***	ab
	하	1.60	.690		a	1.66	.678		a	1.63	.702		a	1.61	.649		a

\*\*\*p<.001, \*\*p<.01 \*p<.05

## 5) 다문화특성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차이를 <표 4-8>과 같이 자신의 외모, 이중언어 사용능력으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자신의 외모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외모가 반 친구들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과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3.416, p<.05, F=2.755, p<.05, F=3.825, p<.01$ ).

<표 4-8> 다문화특성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N = 174)

항 목	개인내적				대인관계				
	M	SD	t / F	사후 검증	M	SD	t / F	사후 검증	
자신 외모	매우다름	1.76	.725	3.416*	a	1.61	.869	2.755*	a
	조금다름	1.52	.722		b	1.65	.706		b
	조금비슷	1.88	.758		c	1.85	.712		c
	매우비슷	2.00	.782		c	2.07	.725		c
이중 언어	전혀못함	1.79	.823	.531	1.80	.718	1.054		
	조금함	1.87	.726		1.91	.759			

\* $p<.05, **p<.01, ***p<.001$

#### 4.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서 제시한 주요변인 차이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간에 임파워먼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본 분석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설명요인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5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9>,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10>, 전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1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다문화특성 변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종속 변인인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학년, 성적, 부모학력, 경제수준과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다문화특성 변인을 선정하였다.

둘째,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와 Durbin-Watson (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잔차 간 자기 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변인을 각각 하나의 독립 변인 군으로 묶어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군들을 순서대로 투입하여 각 변인군의 설명력 변화와 개별 변인들의 영향력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회귀 모델에서 변인 군 투입 순서는 변인 군들의 발생 순서에 의거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장 먼저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을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가정 청소년과 구별되는 특징인 다문화특성 변인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를 조사한 결과 1.0-2.3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9>, <표 4-10>, <표 4-11>에 제시하였다.

##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 변인군 5개의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다문화특성 변인군의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모델 I은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각 항목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년, 부학력, 모학력, 성적, 경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85$ ,  $F=2.992$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은 경제수준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모델 I에 독립 변인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87$ ,  $F=2.171$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경제수준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는 모델 II에 독립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051$ ,  $p<.05$ ).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경제수준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beta=0.271$ ,  $p<.01$ ),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 독립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모델 III에 비해 설명력은 21.5% 증가하여 3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812$ ,  $p<.001$ ). 독립변수별로 보면 모델 I, II, III와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0$ ,  $p<.01$ ), 부모양육태도 변인 중 모양육태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233$ ,  $p<.05$ ). 사회적 지지 변인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157$ ,  $p<.05$ ), 자아정체감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14$ ,  $p<.001$ ).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경제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일관될수록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V는 모델 IV에 다문화특성 변인인 자신의 외모차이와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모델 IV에 비해 설명력은 0.22% 증가하여 약 3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372$ ,  $p<.001$ ). 최종회귀식의 경우 독립변수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240$ ,  $p<.01$ ), 모양육태도는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230$ ,  $p<.001$ ). 자아정체감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16$ ,  $p<.001$ ).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모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일관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정체감 변인의 설명력( $\Delta R^2=.215$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 $\Delta R^2=.085$ ),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명력( $\Delta R^2=.007$ ), 부모양육태도 변인과 다문화특성 변인의 설명력( $\Delta R^2=.002$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다문화특성 등 5개의 변인군을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5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10>에 제시하였다.

모델 I 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 항목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즉 학년, 부학력, 모학력, 성적, 경제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47$ ,  $F=1.572$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모델 I에 독립 변인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54$ ,

F=1.303,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는 모델 II에 독립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4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253,  $p<.001$ ). 모델 III는 모델 II에 비해 설명력이 35.2%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 변인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0.640$ ,  $p<.001$ ).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원인 친구, 교사,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지지체계인 정서 지지, 자존 지지, 물질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 독립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4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833,  $p<.001$ ). 독립변수별로 보면 모델 I, II, III와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 변인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이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7$ ,  $p<.001$ ).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V는 모델 IV에 다문화특성 변인인 자신의 외모차이와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

으로 모델 IV에 비해 설명력은 2.5% 증가하여 약 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0.602$ ,  $p<.001$ ). 최종회귀식의 경우 독립변수별로 보면 사회적지지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583$ ,  $p<.001$ ), 자아정체감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체계를 통해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자신의 외모가 반 친구들과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명력( $\Delta R^2=.352$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Delta R^2=.047$ ), 다문화특성 변인( $\Delta R^2=.025$ ), 부모양육태도 변인( $\Delta R^2=.033$ ), 자아정체감 변인( $\Delta R^2=.003$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임을 알 수 있다.

###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전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5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독립 변인군 5개의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다문화특성 변인군의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모델 I 은 임파워먼트에 대한 다문화가정의 각 항목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년, 부학력, 모학력, 성적, 경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33$ ,  $F=1.101$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모델 I 에 독립 변인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36$ ,  $F=.86$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I는 모델 II에 독립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26.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141$ ,  $p<.001$ ).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지지 변인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0.523$ ,  $p<.001$ ).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인 친구, 교사,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지지체계인 정서 지지, 자존 지지, 물질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 독립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모델 III에 비해 설명력은 5% 증가하여 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7.836$ ,  $p<.001$ ). 독립변수별로 보면 모델 I, II, III와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 변인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beta=.555$ ,  $p<.001$ ), 자아정체감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34$ ,  $p<.01$ ). 다시 말해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V는 모델 IV에 다문화특성 변인이 자신의 외모차이와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모델 IV에 비해 설명력은 2% 증가하여 약 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826$ ,  $p<.001$ ). 최종회귀식의 경우 독립변수별로 보면 사회적 지지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518$ ,  $p<.001$ ), 자아정체감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3$ ,  $p<.01$ ). 다시 말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명력( $\Delta R^2=.23$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정체감 변인( $\Delta R^2=.044$ ), 다문화특성 변인( $\Delta R^2=.016$ ), 사회인구학적 변인( $\Delta R^2=.033$ ), 부모양육태도 변인( $\Delta R^2=.003$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임을 알 수 있다.

<표 4-9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N = 174)

모델	변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I	학년	.034	.070	.032	.065	.029	.060	.053	.108	.051	.104
	부학력	-.053	-.056	-.052	-.055	-.053	-.056	-.062	-.066	-.068	-.072
	모학력	-.101	-.084	-.106	-.087	-.106	-.088	-.070	-.058	-.062	-.051
	성적	-.005	-.009	-.002	-.003	.001	.001	-.059	-.100	-.061	-.103
	경제수준	.156	.247**	.160	.253**	.172	.271**	.152	.240**	.152	.240**
II	부양육			-.024	-.043	-.032	-.057	-.091	-.159	-.090	-.157
	모양육			-.040	-.068	-.032	-.055	-.138	-.233*	-.136	-.230*
III	사회적지지					.061	.090	.106	.157*	.101	.150
IV	자아정체감							.375	.514***	.377	.516***
V	자신외모									-.016	-.037
	이중언어									-.010	-.034
		<b>R<sup>2</sup>=.085, F=2.992*</b>		<b>R<sup>2</sup>=.087, F=2.171*</b>		<b>R<sup>2</sup>=.094, F=2.051*</b>		<b>R<sup>2</sup>=.309, F=7.812***</b>		<b>R<sup>2</sup>=.311, F=6.372***</b>	

\*p<.05, \*\*p<.01, \*\*\*p<.001

<표 4-10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N = 174)

모델	변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I	학년	.070	.102	.061	.089	.035	.052	.032	.046	.017	.025
	부학력	.017	.013	.026	.019	.018	.014	.019	.015	-.017	-.013
	모학력	-.022	-.013	-.028	-.017	-.031	-.018	-.036	-.022	-.032	-.019
	성적	-.092	-.112	-.087	-.106	-.063	-.077	-.054	-.066	-.072	-.088
	경제수준	-.123	-.138	-.118	-.133	.002	.002	.005	.006	.001	.001
II	부양육			.079	.098	-.001	-.002	.008	.009	.003	.004
	모양육			.011	.014	.093	.112	.109	.132	.135	.163
III	사회적지지					.606	.640***	.599	.633	.552	.583***
IV	자아정체감							.058	.057***	.048	.047
V	자신외모									-.102	-.173*
	이중언어									.011	.028
		R <sup>2</sup> =.047, F=1.572		R <sup>2</sup> =.054, F=1.303		R <sup>2</sup> =.402, F=13.253***		R <sup>2</sup> =.404, F=11.833***		R <sup>2</sup> =.429, F=10.602***	

\*p<.05, \*\*p<.01, \*\*\*p<.001

<표 4-11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N = 174)

모델	변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I	학년	0.057	0.124	0.052	0.114	0.036	0.078	0.044	0.097	0.034	0.075
	부학력	0.002	0.007	0.003	0.013	-0.002	-0.007	-0.003	-0.014	-0.01	-0.038
	모학력	-0.03	-0.108	-0.029	-0.105	-0.013	-0.047	-0.008	-0.029	0.000	-0.001
	성적	-0.048	-0.088	-0.044	-0.081	-0.03	-0.056	-0.055	-0.101	-0.064	-0.117
	경제수준	0.014	0.024	0.018	0.03	0.082	0.139	0.075	0.127	0.074	0.124
II	부양육			0.021	0.039	-0.019	-0.036	-0.043	-0.081	-0.044	-0.082
	모양육			-0.014	-0.026	0.032	0.058	-0.013	-0.024	0.000	0.000
III	사회적지지					0.33	0.523***	0.35	0.555***	0.327	0.518***
IV	자아정체감							0.159	0.234**	0.166	0.243**
V	자신외모									-0.057	-0.143
	이중언어									-0.001	-0.002
		$R^2=.033, F=1.101$		$R^2=.036, F=0.860$		$R^2=.266, F=7.141***$		$R^2=.310, F=7.836***$		$R^2=.326, F=6.826***$	

\* $p<.05$ , \*\* $p<.01$ , \*\*\* $p<.001$

#### 4)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4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12>,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13>, 전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표 4-14>에 제시하였다.

독립 변인군 4개의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변인을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모델 I 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 항목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년, 부학력, 모학력, 성적, 경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29$ ,  $F=.993$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모델 I에 독립 변인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 $R^2=.087$ ,  $F=2.278$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III는 모델 II에 독립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고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1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463$ ,  $p<.01$ ). 독립변수별로 보면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200$ ,  $p<.05$ ), 사회적 지지는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청소년은 성적이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인 친구, 교사,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지지체계인 정서, 자존, 물질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 독립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고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2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0406$ ,  $p<.001$ ). 최종회귀식의 경우 독립변수별로 보면 사회적 지지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0.280$ ,  $p<.001$ ), 자아정체감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66$ ,  $p<.001$ ). 즉 일반가정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정체감 변인의 설명력( $\Delta R^2=.105$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 변인( $\Delta R^2=.058$ ), 사회적 지지 변인( $\Delta R^2=.056$ ), 사회인구학적 변인( $\Delta R^2=.029$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임을 알 수 있다.

## 5)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변인군을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4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13>에 제시하였다.

모델 I 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 항목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즉 학년, 부학력, 모학력, 성적, 경제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167$ ,  $F=6.771$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과 성적이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230$ ,  $p<.01$ ,  $\beta=0.235$ ,  $p<.01$ ). 즉 일반가정 청소년은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모델 I에 독립 변인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176$ ,  $F=5.093$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모델 I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I는 모델 II에 독립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4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6.966, p<.001$ ). 모델 III는 모델 II에 비해 설명력이 28.9%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beta=-.195, p<.01$ ), 사회적 지지 또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0.598, p<.001$ ). 다시 말해 일반가정 청소년은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원인 친구, 교사, 가족으로부터 지지와 지지체계인 정서 지지, 자존 지지, 물질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 독립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4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6.966, p<.001$ ). 독립변수별로 보면 학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174, p<.01, \beta=.592, p<.001, \beta=.143, p<.05$ ). 즉 일반가정 청소년은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명력( $\Delta R^2=.289$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Delta R^2=.167$ ), 자아정체감 변인( $\Delta R^2=.0016$ ), 부모양육태도 변인( $\Delta R^2=.009$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임을 알 수 있다.

## 6)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일반가정 청소년의 전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4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14>에 제시하였다.

회귀 모델에서 변인 군 투입 순서는 변인 군들의 발생 순서에 의거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장 먼저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계수를 조사한 결과 1.0-3.3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4-14>에 제시하였다. 독립 변인군 4개의 회귀 모델을 구성하여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변인을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모델 I은 임파워먼트에 대한 일반가정의 각 항목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년, 부학력, 모학력, 성적, 경제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은 ( $R^2=.045$ ,  $F=1.63$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0.178$ ,  $p<.05$ ). 즉,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는 모델 I에 독립 변인인 부양육태도와 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 $R^2=.057$ ,  $F=1.46$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 = -0.19$ ,  $p<.05$ ). 즉,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II는 모델 II에 독립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3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088$ ,  $p<.001$ ). 독립변수별로 보면 모델 I, II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 = -0.128$ ,  $p<.05$ ), 사회적 지지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66$ ,  $p<.001$ ). 다시 말해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인 친구, 교사,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지지체계인 정서, 자존, 물질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델 IV는 모델 III에 독립 변인인 자아정체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식으로 설명력은 3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0.146$ ,  $p<.001$ ). 최종회귀식의 경우 독립변수별로 보면 학년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 = -0.144$ ,  $p<.05$ ), 사회적지지가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76$ ,  $p<.001$ ). 즉 일반가정 청소년

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은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명력( $\Delta R^2=.289$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Delta R^2=.045$ ), 부모양육태도 변인( $\Delta R^2=.012$ ), 자아정체감 변인( $\Delta R^2=.008$ )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임을 알 수 있다.

<표 4-12 > 일반가정 청소년의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가정 청소년 N=184)

모델	변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I	학년	.028	.048	.019	.032	.030	.051	.001	-.001
	부학력	.144	.117	.137	.112	.183	.149	.107	.087
	모학력	-.142	-.113	-.173	-.138	-.185	-.148	-.109	-.087
	성적	.081	.134	.072	.119	.121	.200*	.090	.149
	경제력	.069	-.094	.080	-.109	.068	.092	.081	.109
II	부양육			-.092	-.153	-.085	-.142	-.034	-.057
	모양육			.062	.103	.103	.171	.074	.123
III	사회적지지					.202	.263**	.214	.280***
IV	자아정체감							.243	.366***
		$R^2=.029, F=.993$		$R^2=.087, F=2.278*$		$R^2=.143, F=3.463**$		$R^2=.248, F=6.040***$	

\* $p<.05$ , \*\* $p<.01$ , \*\*\* $p<.001$

<표 4-13 >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가정 청소년 N=184)

모델	변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I	학년	-.178	-.230**	-.184	-.238**	-.150	-.195**	-.134	-.174**
	부학력	-.152	-.093	-.172	-.105	-.033	-.020	.007	.004
	모학력	-.026	-.016	.002	.001	-.035	-.021	-.074	-.045
	성적	.189	.235**	.181	.226**	.033	.042	-.018	-.022
	경제력	-.135	-.138	-.138	-.141	-.101	-.103	-.095	-.097
II	부양육			-.111	-.140	-.091	-.115	-.118	-.148
	모양육			-.138	-.172	-.014	-.018	.001	.001
III	사회적지지					.608	.598***	.601	.592***
IV	자아정체감							.126	.143*
		$R^2=.167, F=6.771***$		$R^2=.176, F=5.093***$		$R^2=.465, F=18.015***$		$R^2=.481, F=16.966***$	

\* $p<.05$ , \*\* $p<.01$ , \*\*\* $p<.001$

<표 4-14 >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가정 청소년 N=184)

모델	변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I	학년	-0.096	-0.178*	-0.102	-0.19*	-0.069	-0.128*	-0.077	-0.144
	부학력	-1.42E-05	-0.012	-1.78E-05	-0.015	-7.03E-05	-0.058	-4.69E-05	-0.039
	모학력	-5.46E-05	-0.044	-3.59E-05	-0.029	4.96E-05	0.04	1.57E-05	0.013
	성적	0.000	-0.085	0.000	-0.081	-7.77E-05	-0.022	-5.70E-05	-0.016
	경제력	0.000	-0.041	0.000	-0.059	0.000	-0.046	0.000	-0.055
II	부양육			-0.093	-0.169	-0.082	-0.149	-0.068	-0.123
	모양육			-0.047	-0.084	0.047	0.083	0.039	0.07
III	사회적지지					0.398	0.566***	0.405	0.576***
IV	자아정체감							0.062	0.101
		R <sup>2</sup> =.045, F=1.63		R <sup>2</sup> =.057, F=1.46		R <sup>2</sup> =.346, F=11.088***		R <sup>2</sup> =.354, F=10.146***	

\*p<.05, \*\*p<.01,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임파워먼트 예측변인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임파워먼트 예측변인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년, 성적, 부모학력, 경제수준),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개념은 임파워먼트로써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강점 관점 이론에 기반한 실천 개념인 임파워먼트에 근거를 두고 임파워먼트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4, 5, 6학년 35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계수를 구하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따른 주요 변인별 특성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이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자아정체감,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일반적 경향 및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남윤주(2009)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어머니는 다른 나라 결혼이민자여성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고 자신의 본국이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주요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적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수준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두 집단 모두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에 비해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비교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가정 학생의 경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임파워먼트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주애란(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제수준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평수(2008b)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영란(2007)의 연구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와 일치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및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모양육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모양육태도가 덜 권위적이고 일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덜 거부적이고 덜 제재적일 때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 어머니 양육태도라고 보고한 조한숙(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심선보(2000)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통제는 비행 및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일반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해 부양육태도가 권위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부모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넷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모두 하위개념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 체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때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정기(1999)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두 집단 모두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일반 아동에 비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송성진(2007) 연구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정현영(2006)의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알아본 다문화특성 변인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자신의 외모가 다른 또래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경란(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이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전체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자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더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높은 자아정체감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만큼 다문화가정이 한국인과 이웃이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지원과 지지체계를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이 키워나가며 자신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회복지활동이 필요하다.

여덟째,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전체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계적 분석결과 중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은 단지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회에 살고 있으며,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차이로 인식하기보다는 각 개인차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임을 알아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부모양육태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50% 정도가 일본인 어머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국적이 원인이 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정 대상의 다른 연구(송성진, 2007; 정정희, 2006; 한영현, 2006)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낮은 자아정체감을 가졌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연구대상의 집단간 차이가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독립 변수와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임정기(1999)와 같은 결과이며, 이혜경(2007)의 연구에서도 친구,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개인내적 또는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 친구 및 교사를 어떻게 지지원으로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주어진 환경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 스스로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자아정체감 형성이 임과워먼트에 영향력 있는 변인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본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외국인 부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처럼 대하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과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정작 다문화가정 학생들 자신은 반 친구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다문화를 특수집단인양 강조하며 갖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임을 부각시키며 각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구분 짓지 말고 같은 동일집단으로 다루어 이질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다르게 인식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초

점을 맞추어 적절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반된다면 이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향상되어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이 성장발달 시기에 맞는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입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점차 한국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될 것이며 이들의 발전 가능성과 적응 여부에 따라 한국사회가 미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이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들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칫 이 사회에 부적응하여 초래되는 많은 사회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내적, 대인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아 청소년의 개인, 가족, 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는 실천현장에 적용 될 수 있도록 경험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나아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의 중요성과 임파워먼트 개념을 적용한 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국적이 일본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어머니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다른 동아시아권 국적의 어머니보다는 한국과의 문화차이를 적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주요변인간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횡단적으로 연구한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에 대한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들이 실제로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얼마나 향상시키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임파워먼트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여 실천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모두에게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 변인은 확실한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깨우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국가가 나서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근종(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유미(2006).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다문화가정 현황 보고자료.
- 국영희(2008). 비행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소년원 가퇴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금연(2009).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전홍주, 배소영(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0집 3호, 151-165.
- 곽소현(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근영(2008). 빈곤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희(2006). 국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유경(2007). 결혼이민자 가정에서의 호혜적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 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형섭(2007). 변혁적 리더십이 호텔종사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금명자 외(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란(2007).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2006).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충성고객 관계관리 구축모형. 고객만족경영연구, 제8권 2호, 37-50.
- 김남숙(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22, 351-381.

- 김수정(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5호, 9-38.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Vol. No.18,
- 김영란(2007).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 정슬기, 유서구(2007).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임파워먼트의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Vol. 20, 163-190.
- 김영주(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지혜(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7). 강점관점에 기초한 청소년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주, 박길태(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특징 : 일반 청소년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9집 1호, 93-128.
- 김희성(2002a).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성(2002b).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호, 91-113.
- 김희성(2004).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

- 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3호, 135-157.
- 김희성(2005). 청소년의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에 대한 참여의 효과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12권 1호, 325-345.
- 남윤주(2009).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자아 개념과 우울에 관한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재선(2008). 다문화 가정의 환경적 특성과 자녀의 교육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호(2005). 청소년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임파워먼트 접근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3권 2호, 47-66.
- 문지영(2004). 청소년 참여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 실천사례 연구 : 진주지역 청소년 조직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 석사학위논문.
- 박민선(1999). 경제 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샤론(2010).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7권 3호, 373-393.
- 박지선(2009).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00). 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임파워먼트 요소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형식(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신영(2006). 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미숙(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상이(2010).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민규(2007).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시흥·안산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록(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여성을 중심으로 ,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성자(2003). Bowen의 가족치료 적용을 통한 한국적 의사소통 향상에 관한

-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신란희(2006).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선보(201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선(2010).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현주(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 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옥(2006).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 3호, 223-252.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4호, 137-157.

- 유난영(2008). 빈곤지역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위험,보호요인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옥(1998).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제공자와 지지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제12권 1호, 127-144.
- 유평수(2008a). 전문계 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7호, 1-21.
- 유평수(2008b). 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1호, 171-196.
- 윤동엽(2010). 청소년 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남영옥(2008).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2호, 63-82.
-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숙(2007).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정원(2009).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인터넷 중독: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애(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 :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 이춘재(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 이태옥(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 : 영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정(2007).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있는 농촌노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기(1999).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거주유형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한나(2008). 다문화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욕구분석 :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 신호선(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3호, 123-147.
- 장신재(200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0권 1호, 117-146.
-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2009).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7권 6호, 21-38.

-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3호, 33-52.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정순둘, 김경미, 박선영, 박형원, 최혜지, 이현아(2007). 사회복지와 임파워먼  
트. 서울: 학지사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한숙(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어머니 양육행동  
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애란(2006).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  
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정웅, 김미옥, 최명민, 노혜련,이용교(2009). 강점관점 청소년개발 레질리언  
스. 신정.
- 최경숙(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금혜(2006).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용민, 문재우, 전대성(2008). 사회복지개론. 계축문화사.
- 최용민(2006). 자활근로여성을 위한 역량강화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성균관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승애(1988). 내-외 통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유형의 스트레스 완충 효과: 대학생 집단의 성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주희(199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0). 외국인과의 혼인현황.
- 표갑수(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 출판.
- 표현영(2004).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 서남대학교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진주(2003). 몽골출신 이주노동자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밍타이(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5 No.5.
- 황령희(2002).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국의 여성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R.(2007).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최명민 역). 서울: 나남 출판.
- Assay, T. P. & Lambert, M. J.(1999). The empirical case for common factors in therapy: Qualitative findings. In Hubble, M. A., Duncan, B. L. & Miller, s. D.(Eds.).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What works in therapy*. Washington, DC; APA Press, 33-56.
- Barrera, M.(1981). Social support in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s: Assessment issues. In B.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69-96, Beverly Hills: Sage.
- Blundo, R.(2006). Shifting our habits of Mind: Learning A strength Perspective. In D. Saleebey(Ed.).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25-45.
- Bolton, B. & Brookings, J.(199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43(2). 131-142.
- Cauce, A. M., Felner, R. D. & Primavera, J.(1982). Social support in high-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a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17-428.
- Cobb, N. J.(1992). *Adolescence continuity, change, and diversity*.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 13, 99-125.
- Compas, B. E., Slavin, L.A., Wagner, B. M. & Vannatta, K.(1986).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205-221.
- Cooke, B. D., Rossman, M. M.,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8). Examining the definition and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a resour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37, 211-216.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Erikson(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Fagan, H. (1979). *Empowerment: Skills for Parish Social Action*. New York: Paulist Press.
- Glicklen, M. D.(2004). *Using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8-62. Boston: Pearson.
- Grossman, F. K. & Beinashowitz, J. & Anderson, M. & Sakurai, M.(1992). Risk and Resilience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5), 529-550.
- Gutierrez, L.(1989).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 perspective. *Social Work*. Vol. 35(2). 149-154.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Wesley Publishing Co.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Lakey, B. & cassady, P. B.(1990). cognitive processes in perc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337-343.
- Parsons, R.(1999). Assess Helping Process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Shera W. & Wells L. M.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Rapport, J.(1987). Terms of Empowerment/ Exemplars of Prevention: Toward a Theory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69-579.
- Rapp, C. A.(1988). The purpose, principles and Research results of the strengths model. *In the Strengths Model*. 44-6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aleebey, D.(2006). The Strengths Approach to Practice.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77-92. Boston: Person Education, Inc.
- Simmons, B. L.(1994). The Empowerment Traditions in American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olomon, B. B.(1976).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Longman Publishing Group.

Turner, B. S.(1986).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용석, 박철현 옮김. 일신사.

Weick, A., Rapp, C. A., Sullivan, W. P(1989). A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89, 350-354.

Welck, A., Kreider, J. & Chamberlain, R.(2006). Solving Problems from a Strengths Perspective. In D. Saleebey(Ed.).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48-62.

Zimmerman, M. A.(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81-600.

Zimmerman, M. A., & Zahniser, J. H.(1991). Refinement of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spectives control: development of a sociopolitical control scal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 189-204.

## ABSTRACT

A Study on Empower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ison between cases of multicultural and regular households-

Jun, Jong Mi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ue to a rapid ri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its constituents coming from diverse na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which requires that Korea make the necessary preparations in various aspects.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cently entering the established educational institution of Korea in large numbers and look closely at how those children are adapting to their social environment.

Based on the empowerment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how elements such as parental attitude, social support and self-identity affect the empowerment of adolescents, by comparing the cases of multicultural and regular famil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ve different pers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t trie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such variables between the two cases and the causes for those difference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174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184 adolescents from regular households in a total of 358 from grade 4 to grade 6 in elementary school. Their places of residence include Seoul,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Province, Gyeongsang Province and Jeju Province, and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help of local elementary school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s measurement tools, the parental attitude scale by Min Sun Park (1999), the self-identity scale by Ah-Chung Park (2003) and the social support scale used by Kyung Ran Kim (2006) were employed. In addition, intrapersonal empowerment and interpersonal empowerment from the adolescent empowerment scale developed by

Hee-Sung Kim (2002b) were used.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18.0.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and regular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al levels of the fathers were somewhat lower in the cas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households, but the educational levels of the mothers were similar in both cases. A t-test showed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get lower marks at school than those of regular families, a difference which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that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homes regarded their own economic level to be lower than that of adolescents from regular homes. After an examin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 was found that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those of adolescents of regular families.

Second, the differences in parental attitude, social support, self-identity and empowerment betwee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gular famili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Overall,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self-identity and empowerment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households were lower than those of adolescents from regular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compared to adolescents of regular families, those of multicultural families perceived the parental attitude of their parents to be more authoritative and inconsistent.

Thir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mpower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and regular families. As a result, social support and self-identity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is,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and self-identity, the higher the level of empowerment was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trast, in the case of adolescents of regular families, their school grade level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the lower their grade level and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the higher the level of empowerment was among adolescents of regular families. In both groups, social support was shown to have the greatest relative influence on empowerment.

Fourth, a path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on the empowerment of both groups of adolescents. As a result, in the case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elf-identit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empowerment in the sexual and maternal variants. As for adolescents of regular families, self-identity was found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 on empowerment in the school grade level varia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affecting the empowerment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and regular households,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nt. The social support system consists of support from the family, teachers and friends as well as material support, self-identity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Ultimately, in order to reinforce the empowerment of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think within those specific sub-concepts. Raising the level of social support comes not only through family efforts but also a change in the social awareness and climate in which teachers, neighbors and friends help each other out and lend support. In other words, there is an urgent need to find a way to expand multicultural awareness education among regular people so that a better awareness takes root in society.

Second, it was found that parental attitude is a more influential varia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opposed to those of regular families. Maternal attitude had a particularly direct influence on the self-identity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households and is ultimately an empowerment facto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parental education and useful programs to train the mothers in good parenting while their children are growing up.

부 록

ID			
----	--	--	--

## 설 문 지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각 질문에는 맞는 답도 없고, 틀린 답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문항을 읽은 후 곧바로 떠오르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이름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내용은 순수한 연구 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한문항 한문항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지도교수 김주희  
박사과정 전종미

◎ 올바른 자기 이해는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들이 당신의 경우에 어떻게 해당되는지 판단한 후 하나에만 ○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해당 되지 않는다	별로 해당 되지 않는다	어느 쪽도 아니다	조금 해당 된다	매우 많이 해당 된다
1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1	2	3	4	5
3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4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1	2	3	4	5
6	모임에 나가면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1	2	3	4	5
7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1	2	3	4	5
8	나는 꾸준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9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1	2	3	4	5
10	나는 계획한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나 자신은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일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1	2	3	4
2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잘 했는지 자신이 없다.	1	2	3	4
3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다.	1	2	3	4
4	내가 나의 삶을 조절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힘들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7	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1	2	3	4
8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1	2	3	4
9	나는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10	나는 동네(지역사회)의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	2	3	4
11	나는 인생에서 별로 성취한 것이 없다.	1	2	3	4
12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할 만큼 단련이 되어 있지 않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나의 인간관계는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자 한다..	1	2	3	4
3	나는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1	2	3	4
4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나는 어떠한 경험이란 많이 하고자 한다.	1	2	3	4
6	나는 타인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다.	1	2	3	4
7	나는 내가 한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8	나는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융통성이 많은 편이다.	1	2	3	4
9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동료들도 나에게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10	나는 친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선생님 등 여러분 주변사람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1	2	3	4
2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친구가 있다.	1	2	3	4
3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4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준다.	1	2	3	4
5	우리 가족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1	2	3	4
6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다.	1	2	3	4
7	나는 선생님과 친하다.	1	2	3	4
8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1	2	3	4
9	선생님은 내가 힘들 때 도와 주신다.	1	2	3	4
10	외로울 때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	1	2	3	4
11	비밀 얘기를 할 사람이 있다.	1	2	3	4
12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해준다.	1	2	3	4
13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아이'라고 인정해준다.	1	2	3	4
14	필요한 물건을 나에게 빌려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15	돈이 필요할 때 나에게 주거나 빌려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16	아프거나 힘들 때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어머니				문 항	아버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아버지(어머니)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떤 규칙을 따르도록 가용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1	2	3	4
1	2	3	4	2.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가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때리거나 위협하신다.	1	2	3	4
1	2	3	4	3. 아버지(어머니)는 내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어머니)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신다.	1	2	3	4
1	2	3	4	4.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때가 많으시다.	1	2	3	4
1	2	3	4	5. 아버지(어머니)는 화가 나면 내게 자주 화풀이를 하신다.	1	2	3	4
1	2	3	4	6.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1	2	3	4
1	2	3	4	7. 아버지(어머니)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1	2	3	4
1	2	3	4	8.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어떤 때는 혼자 못 하느냐고 꾸짖으신다.	1	2	3	4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①초등4학년 ②초등5학년 ③초등6학년 ④중1학년 ⑤중2학년 ⑥중3학년
3. 여러분의 형제관계를 적어주세요. (     )남 (     )녀 중 (     )째
4.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서울 ② 경기도 ③ 충청도 ④ 전라도 ⑤ 경상도 ⑥ 강원도 ⑦ 제주도
5. 아버지의 국적은?  
①한국 ② 중국(조선족포함) ③ 일본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기타
6. 어머니의 국적은?  
①한국 ② 중국(조선족포함) ③ 일본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기타
7. 아버지의 학력은?  
①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이상
8. 어머니의 학력은?  
①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이상
9. 자신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통일교 ⑥ 기타
10. 여러분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상위권(1등~10등) ② 중위권(11등~20등) ③ 하위권(21등 이후)

11. 여러분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① 상(좋은 편) ② 중(보통) ③ 하(힘든 편)
12. 자신의 외모는 반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어떤 편인가요?  
① 매우 비슷하다 ② 조금 비슷하다 ③ 조금 다르다 ④ 매우 다르다
13. 나의 외국인 어머니(아버지) 나라의 언어 실력은 어떤 편인가요?  
① 전혀 못 한다 ② 조금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잘 한다 ⑤ 매우 잘 한다
14.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어떠한가요?  
① 부모+자녀 ② 조부모+부모+자녀 ③ 한부모+자녀 ④ 기타